주일 메시지 요약 **2026년 7월 26일**

부르심을 받은 자 히5:1-10

대부분은 “하는 사람” 이다. 보는 사람 혹은 본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시작하신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잘 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자기와 뜻과 생각이 통하여 함께 갈 준비가 된 사람이 필요하다. 성경과 같은 응답을 받거나 지속적인 응답을 받으려면 본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성경적인 눈으로 전도를 본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앞서서 진행해 나가실 것이다. 하나님과 통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 갈 준비가 되어 있고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
이렇게 하여 눈이 열리고 하나님과 생각이 통하게 되면 지금까지 들었던 메시지를 정리하고 그러므로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이라는 순서를 예측할 수도 있게 된다. 보인다는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눈이 열려 본 사람은 하나님과 Oneness가 된다. 아무런 갭이 없어지고 하나님과의 사이에 갈등이 사라진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음 놓고 자신의 계획을 시행하실 것이다. 옆 길로 갈 가능성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자기에게 영광을 돌릴 가능성도 없어졌다.
그러므로 눈을 여는 것이 중요하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받으면 누구든지 다 이렇게 된다.
눈이 열리고 보게 되고 결론을 내게 되고 언약이 되고 자연적으로 기도가 되고 때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부르짖게도 해 주신다. 당연히 응답이 올 것이며 응답을 통하여 많은 것을 확인하고 확정하게 된다.
말씀이 들어오면 일어나는 중요한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어떻게 해야 할 지가 보인다. 이미 확신과 함께 결론에 도달한다. 답을 가진 상태가 된다는 뜻이다. 이렇게 되면 가만히 앉아서 정복을 하게 된다. 아직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았는데 믿음으로 결론 난다. 그러면 그 자리서 정복이다. 미래를 그냥 알게 된다. 한나가 응답을 받고 난 뒤에 즉시로 바뀐 상태를 상상해 보면 누구나 이해할 것이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삶이 지속되길 바란다.

1. 부르심을 받은 자

1)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되어진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제사장 직분은 너무나 귀하다. 언약의 피 제사를 백성을 대신하여 지내주는 선택된 사람으로서 만일 제사장이 없으면 백성들은 제사를 드릴 수 없다.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언약의 피를 고백하지 못하므로 사단의 공격을 있는 대로 받게 된다. 저주와 재앙과 운명이 떠나가지 않고 지구상의 모든 인간들이 전부 사단에게 죽도록 맞으며 살다가 지옥으로 몰 가게 된다.
2) 제사장 직 뿐 아니라 선지자 직도 마찬가지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에게 전달을 해 주는 직분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오직 선지자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만일 선지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세상에는 말씀이 없다. 그러면 인간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산다. 그것이 사사기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무리 해도 알 수가 없어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바리새인들이다.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고 말씀을 받은 적이 없었다. 롯도 중요한 예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롯은 말씀을 받은 적이 없고 희생제사 한 번 드린 기록도 없다
3) 왕직도 마찬가지다. 왕이 언약에 바로 서야 사단의 역사를 막을 수 있다. 북 이스라엘에는 언약이 바른 왕이 한 사람도 없었다. 결국 앗수르에 끌려 가서 다 죽었

다. 사마리아가 탄생 되었다. 유다에는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 왕을 성군으로 꼽는다. 언약을 바로 행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 준 왕들이었다. 그러므로 이런 왕들의 시대에는 기적의 연속이었다. 다윗은 하는 전쟁마다 다 이겼다. 히스기야는 앗수르 군대 185000명이 하루 저녁에 다 죽는 기적을 보았다. 앗수르 왕 혼자 돌아갔는데 그도 자기 신에게 절하는 중에 두 아들의 칼에 찔려 죽었다. 요시야 왕은 율법책을 발견하고 대대적으로 종교를 개혁하고 성전을 수리하고 유월절을 지키는 등 다윗과 비교하여 말하는 왕이다.

4) 왕이 이처럼 중요하다. 왕이 우상 숭배를 하면 나라 전체가 재앙이다. 자기 혼자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왕이다. 제대로 된 왕이 아니면 전 국민 다 죽는다. 제사장 없으면 아무리 제사 드리고 싶어도 불가능이다. 제사장이 없어서 스스로 제사를 드리면 사울 왕이 스스로 제사를 드렸을 때 사무엘이 한 말과 꼭 같이 된다. 삼상13:13-14이다. 사울은 자기가 번제를 직접 드리므로 나라를 빼앗기게 된 것이다. 왕직을 빼앗기게 된 것이다.
5) 이 놀라운 선지자 제사장 왕 직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늘 우리의 주가 되어 주신 것이다. 자신이 스스로 되어지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지신 것이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그리스도였고 그는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고 완전한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다.
6) 우리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부르셨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다. 출애굽을 한 이유를 몰랐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여 결국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를 잘 알기를 바란다.

2. 순종

1) 8절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9절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고 …… 평범한 단어들이지만 중요한 원리 하나를 담고 있다. 주님은 아들이시면서도 순종하여 온전하게 되었다고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때에야 온전해진다는 뜻일 것이다.
2) 그리고 그렇게 되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의 구원의 근원이 된다는 말씀이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다. 순종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과 소원과 이유가 일치하여야 하는데 이것이 순종이다. 그렇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작품이 될 수 없다.
3) 온유한 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잘 길들여진 것을 말한다. 그러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지는 이미 정해져 있다. 땅 끝까지 이 복음 증거하는 일에 인생을 드려야 한다. 그것이 내 모든 문제의 답이며 내 미래를 정복하고 나의 인생을 성경과 같은 작품으로 만드는 길이다.
4)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은 사람들이었다. 모르면 그냥 복종이라도 하면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는 지속이 되지 않고 평안과 감사와 행복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되지 않는다.
5)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듣는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가는 것이다. 그러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만나고 소원이 통하고 이유가 통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WIOS이다. 오늘도 온유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 우리 모두의 인생이 작품이 되고 가정과 가문의 기념비가 다 되길 바란다.